

제주신문

청렴 한 움큼으로 '손씻기'



고 경 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나는 화장실에서 나올 때면 항상 비누로 손을 씻는다. 비누를 묻힌 손을 비빈 후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마저 뽀뽀 문대어 씻고 난 후 휴지 한 장을 이용해 손의 물기를

흡친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소독제를 사용해 한 번 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가짐을 다잡으며 사무실에 들어간다.

청렴은 손 씻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화장실을 사용하면 손을 비누로 씻고 닦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게을리하게 되는 것이다. 청렴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청렴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마음을 바로 하고, 자신의 태도가 꾸준하지 않으면 게을리하게 되는 것이다. 손 씻기를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듯 공직자들 자신이 청렴하지 않으면 공직 사회 전체가 병에

걸리는 것이다.

청풍양수(淸風兩袖)는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는 뜻이다. 재물을 탐하지 않고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사자성어이다. 물론 의식주와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빈손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꼼꼼하게 손을 씻어 더러운 것을 닦아 내는 것처럼 부정할 청탁, 뇌물을 씻어낼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청렴하게 살아가는 길이며, 나아가 공직사회 전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해가 바뀌어도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아닌 소규모로 전국 곳곳에 확진자를 발생하고 있는 오늘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이런 때야말로 공직자로서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고 직무에 정진한다면 '청렴'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과 동시에 모두의 어려움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믿는다.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은 청렴이 기본



강 보 철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요즘 동주민센터에 출근하면 공무원은 청렴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귀가 따라올 정도로 듣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

청렴이란 무엇일

까? 청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떤 이는 정약용 선생님이 문구를 많이 인용한다. '청렴하지 않은 자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나는 이순신 장군의 청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 갈 때에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리니' 이 시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다시 한번 청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

아닐까 싶다.

공무원 조직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선배님들은 내게 이렇게 얘기한다. 회의 후 식사는 1차까지만 해라, 공모사업 신청받을 시 정에 이끌리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보조금은 단체 활동 상황을 고려해 신청받아라. 상사가 시키면 'YES맨'이 되지 말고 법에 맞는 지 한번 더 생각해 보라는 등 많은 이야기를 얘기한다.

그럼 내게 청렴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청렴은 나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그런 무언가가 아닐까 싶다. 나는 '나의 가치'를 내적·외적인 면에서든 동료나 민원인들에게 떳떳하게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나의 신념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 앞으로 10여 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겠지만 이런 청렴에 대한 생각을 잃지 말고 더욱더 갈고 닦아 현재보다 더 나은 떳떳한 공무원이 되고 싶다.

코로나 극복의 촉매 '청렴'



이종길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2020년은 기쁨보다 슬픔이 많았던 한 해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점점 백신의 개발 소식 등으로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가까워진다는 소식을 매일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2021년 경제 회복의 소식은 아직까지 그리 밝지 않다. 전 세계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일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 속에서도 불행 중 다행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한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상처를 치유

하기 위해 2021년에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청렴'이 아닐까 싶다. 2020년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세계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점수는 2점, 순위는 6위가 올라 1995년 CPI 측정 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부패는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고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 부패 때문에 국가 정책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기업도 기술개발보다는 비공식적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웃이, 가족이 힘들어하는 때 이들과 같이 가기 위해 '청렴'을 가슴에 새기고 한 해를 보내는 건 어떨까? 2021년에는 '청렴의 해'가 되길 바란다.

독자기고

슬기로운 생활과 함께 하는 청렴

새해 들어서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행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재확산 되면 확진자수 증가로 많은 밀집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계획하던 행사들도 안타깝게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접해야 한다.

제주도가 도내 의료·역학조사 역량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기간을 17일까지 연장한 것은 완



김금자

요한 시점으로 됐다. 언제 또 기승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 해

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 확산 추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여기서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중

나갈 때이다. '나 하나 썸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 한사람이 더해져야 이 어려운 시국을 잠재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하겠다.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마음씨를 갖고 자기 직분을 다하는 일이라는 청렴의 마음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청정 제주를 재차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이행해 슬기롭게 함께 이겨나가야 하겠다.

이 상황을 잘 이겨냄으로써 아주 작은 것이지만 행복한 일상이 하루빨리 함께하길 기대한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장>

독자기고

청결과 청렴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인류가 생긴 이후 현재까지 오늘날 우리의 손은 아마 가장 청결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변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와 세정제! 그리고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마스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한 상태일 것이다.

‘예방이 최선의 백신이다’라는 말처럼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의 사용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몸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이나 위험한 부패 바이러스가 있음을



임명수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정 청탁과 알선으로 무장한 부패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한다면 잠복기를 거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시점에 갑작스레 커다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패 바이러스에도 예방법과 백신이 있다. 바로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백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의무적이고 타의적인 청렴교육이 아닌 공직자가 자발적

으로 부패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렴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의를 다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속 뛰어난 위인이나 주변에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는 동료 공직자들의 사례를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롤모델로 삼고 따라한다면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존경심이 우러러 나와서 자연스럽게 청렴백신이 생길 것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다. 하지만 몸은 청결하게 마음은 청렴하게 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부패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해피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이다. <서귀포시 총무과 주무관>

올해는 소처럼 청렴하게 살아보게 마십시오



강 선 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신축년은육십간지 중 38번째로 백색에 해당하는 천간의 '신'과 소에 해당하는 지지인 '축'이 만나 하얀 소띠의해를 의미한다고 한다.

청렴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이었다.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어느 시기나 공직자에게 청렴을 강조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청렴을 그 어느 시대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청렴을 강조했다는 것은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가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에 청렴한 관료들은 '사불삼거(四不三拒)'를 불문율로 삼았다고 한다.

“부업을 하지 말라, 땅을 사지 말라, 집을 늘리지 말라, 재임지의 명

산물을 먹지 말라”가 사불(四不)이고,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라,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답례를 거절하라, 경조사 부조를 거절하라”가 삼거(三拒)라고 한다.

공직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원인에게는 늘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고위층일수록 권력의 달콤한 맛에 현혹되고 업무상 알게 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갑질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공직자는 대통령이든 말단 공무원이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렴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부패돼 유유히 흘러가는 어지러운 강물이 되기보다는 나라와 조직을 위한 맹렬한 파도가 돼 잘못 지어진 모래성벽도 음참마속(泣斬馬謖) 할 수 있는 것이 팀과 조직을 위한 진정한 소통일 것이다.

청렴도 1등급을 향해

남원읍사무소 소득지원팀



고 성 찬

제주도는 2020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5등급에서 3계단 상승한 2등급을 받아 최고 순위를 차지하였다.

종합청렴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2008년도 이후로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 최고 순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강조되면서도 실천하기 힘든 가치이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다음은 과거 조선 시절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

조선 세종 때의 문신 정갑손은 관직을 두루 거쳐 경기도와 함경도 관찰사를 겸하던 사람이었다.

그가 함길도 관찰사로 있을 당시 함길도에 서 실시한 과거 초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해보

니 그의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평소 아들의 공부가 부족함을 알고 있었던 그는 관리들이 정갑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합격을 시켰다는 것을 알아채고 크게 화를 내며 관리를 꾸짖었다. 그리고는 합격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우고 아들을 합격시킨 관리를 파면시켰다.

자기 자식이라도 실력을 냉정히 평가하여 특혜를 배제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처리한 정갑손처럼, 우리도 맡은 일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한 행동은 조금씩 쌓여서 공직자에 대한 도민들의 깊은 신뢰로 돌아와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된다.

청렴도 최고 순위를 차지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렴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라 생각하며 늘 마음에 담아 업무에 임하여 올해에는 더욱더 공정한 제주, 청렴도 1등급 제주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청렴'

'청렴'은 공직사회에서 항상 회자하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공무원이 청렴하고자 하는 것은 청렴하기 위해 청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조리에 맞서 자유롭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함이다.

대부분 사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청렴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공직사회 안에서도 이를 모르는 공직자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렴'을 공무원의 의무 중 하나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마스크를 통해 보도되는 비리 문제와 이러한 현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청렴이 무엇이야'고 물어보면 대부분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대답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의 청렴이라 함은 공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며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양심에 가책



강경표
제주시
일도2동

을 느끼지 않음을 청렴이라고 말하고 싶다. 결국 청렴이란 자기 자신만의 기준점을 정해두고 그 기준과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

이 가장 가까운 의미의 청렴이 아닐까 생각한다. 큰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공직이 아니니 결국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큰 보람이자 존재 이유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청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대중적인 말로 인식하기보다는 몸소 자신이 느끼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작은 실천이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 이런 작은 변화가 모인다면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127 X 131 mm

열린마당

청렴한 건축을 위한 노력



변상인
서귀포시 건축과장

지난 2020년 우리시가 처리한 건축 민원 건수는 1586건에 이른다. 최근 건축민원 처리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접수돼 처리되고 있어 민원인과 건축사와의 접촉은 많이 감소했다. 업무담당자는 부정청탁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멀리 뒤야 하고 인허가 여부를 청렴하고 적법하게 판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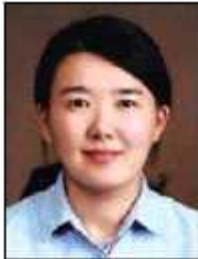
건축주는 평생 추구하고 있는 건축에 대한 꿈을 인허가를 받고 건축물 완료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만족감을 성취한다. 그러나 그 주변 시민들은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

다. 그러한 불편사항이 관련규정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청렴하지 못한 인허가는 주변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을까.

건축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속, 정확, 친절함의 민원처리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건설경기 하강으로 민원처리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더욱 빠른 민원처리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21년도 건축민원 평균 처리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모든 건축역량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민원인이 이해하고 즐거운 맘으로 시청을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렴한 건축 실천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드리고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청렴한 건축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다.

청렴과 자기반성



고수경
서귀포시
송산동

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청렴(清廉)'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그만큼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큰

것이라 생각한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하려는 자세, 뜻과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다.

필자는 2021년 상반기 인사에 송산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팀장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주민센터는 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기관으로 지난 15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나는 청렴한 공직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생각한 청렴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청렴의 뜻을 깊게 생각해 보면 부패를 멀리함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성심성의껏 하려는 자세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면서 자기일만 열심히 하면, 큰 무리 없이 알하면 최선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왔던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로 모든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렴의 기본 뜻이기도 하는 성심성의를 다하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송산동은 정방폭포, 쉼섬, 문섬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솔동산문화의 거리, 작가의 산책길 등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코로나19로 다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주민 의견을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성심성의를 다하는 청렴의 자세로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고자 다짐한다.